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3월 13일 (조)간부터
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내 용 : 『노동리뷰』 3월호 - 통계프리즘

■ 연금지급과 노동시장참가율간의 관계에 관한 OECD 국가간 비교(김정우 책임연구원)

- OECD 보고서(2004)에 따르면, 한국 근로자들의 실제 은퇴연령은 남성이 68.2세, 여성이 66.9세로 OECD 평균보다 높음.
- 노령인구에 대한 연금제도의 도입은 근로자의 은퇴(시기) 및 노동시장 참가(율)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, 실제 OECD 국가에서 연금지급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가는 음(-)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됨(추정계수는 -0.5로서 5%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).
-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노동시장 참가율은 높고, 연금의 대체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, 이는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의 만기인 2008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임.
- 한국도 앞으로 연금지급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시장 참가율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함께, 연금지급 등 노동시장 제도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참가율의 저하는 노동력 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면밀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

문의처 : 한국노동연구원 김정우 책임연구원

Tel : 783-7155 E-mail : kjw@kli.re.kr

* 한국노동연구원 보도자료 및 원문은 인터넷(<http://www.kli.re.kr>)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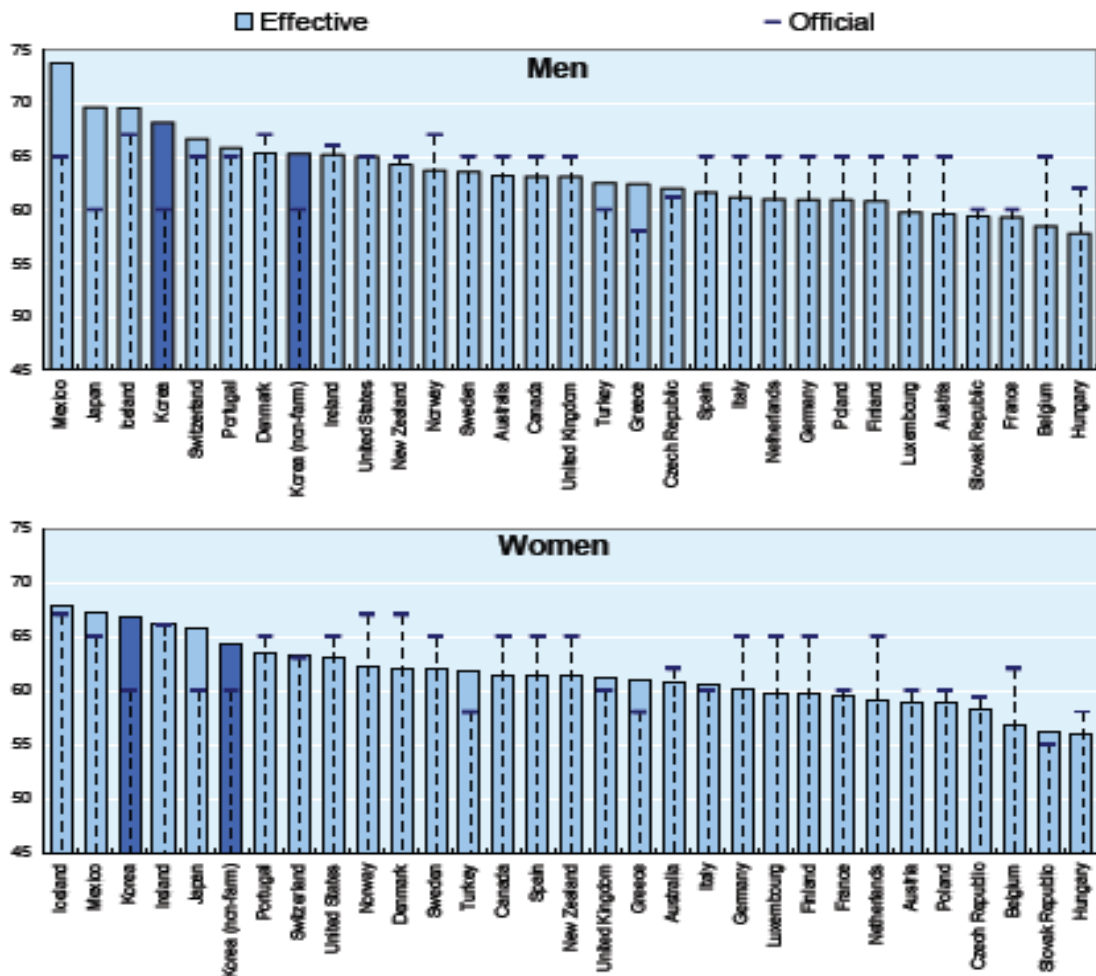
연금지급과 노동시장참가율간의 관계에 관한 OECD 국가간 비교

담당자	김정우 책임연구원
전화	02)783-7155

○ OECD 보고서(2004)에 따르면, 한국 근로자들의 실제 은퇴연령은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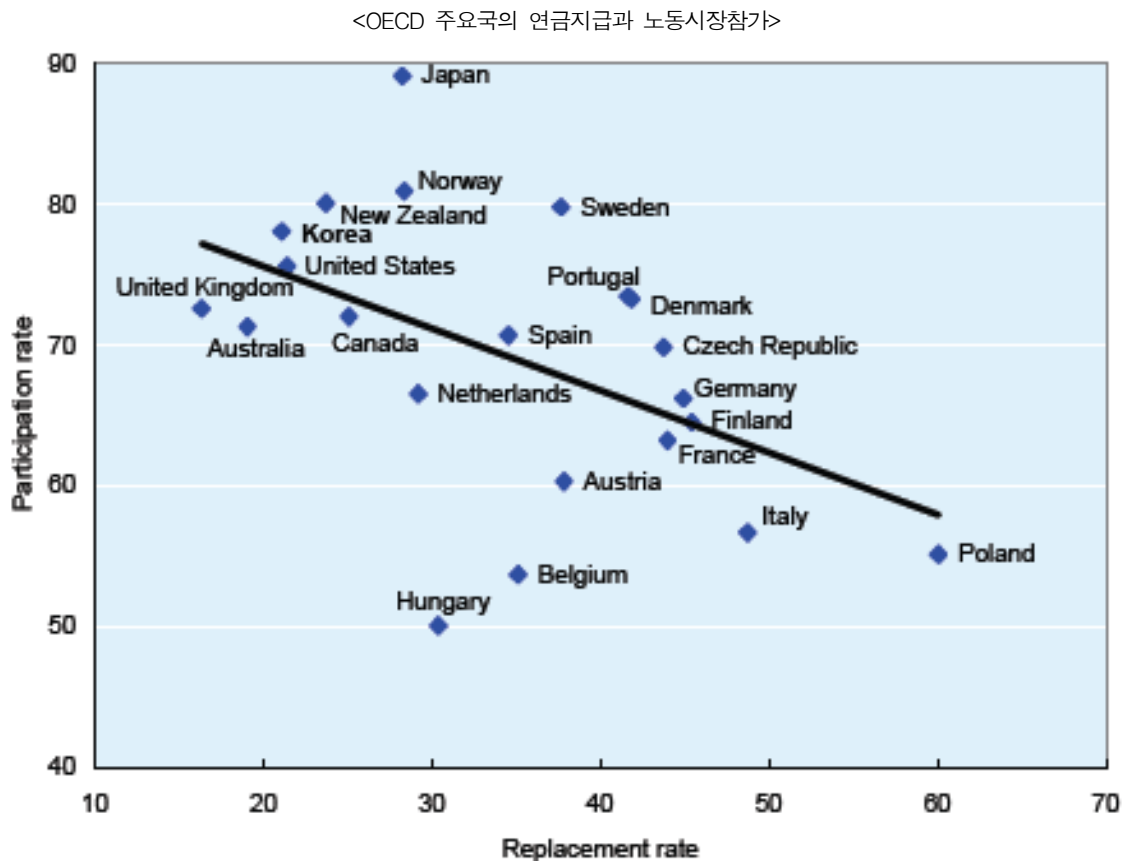
- 1997~2002년 사이, OECD 주요국의 공식적인 은퇴나이는 평균 65세임.
- 한국 남성 근로자의 실제 은퇴연령은 평균 68.2세로 멕시코, 일본 및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높으며, 여성 근로자는 66.9세로 아이슬란드, 멕시코 다음으로 높음.

<OECD 주요국의 실제 및 공식적 은퇴시기>



자료 : OECD(2004), *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*, KOREA.

- 노령인구에 대한 연금제도의 도입은 근로자의 은퇴(시기) 및 노동시장 참가(율)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, 실제 OECD 국가에서 연금지급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가는 음(-)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됨(추정계수는 -0.5로서 5%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).



자료: OECD(2004), *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*, KOREA.

- 가로축의 대체율(replacement rate)은 GDP 중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총 공적연금비용과 조기퇴직의 편익을 합한 것의 비중을 의미함.
- 한국의 경우 노동시장 참가율은 높고, 대체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, 이는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의 만기인 2008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
- 한국도 앞으로 연금지급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시장 참가율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¹⁾
-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함께, 연금지급 등 노동시장 제도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참가율의 저하는 노동력 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면밀한 정책적 대비가 요구됨.

1) OECD(2004), *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*, KOREA. pp.79~83.